

# 최신 시설 갖추고 제2도약 꿈꾼다

캘린더전문 제작업체인 홍일문화인쇄사(회장 이연지)가 최근 최신 시설을 보강하고 6월의 월드컵 감동을 이어가는 월드컵 캘린더를 제작해 출시하는 등 제2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특히 대를 이을 설립자 고장세근사장의 아들 장원혁씨가 입사하면서 사옥을 현대식으로 리모델링하고 전시장도 새롭게 꾸몄다. 내년쯤엔 경기도 파주인쇄공단에 제본 시설 위주의 제2공장을 지을 계획도 세우고 있다.

이 회사는 10월 5일 신당동 사옥에서 미쓰비시 대국전4색기를 도입하고 가동식을 겸한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로써 지난해 하이텔베르그 대국전 5색기 최신형을 도입해 대부분의 인쇄기계를 최신형으로 교체한 셈. 이날 기념식에서 이연지회장은 “오늘의 홍일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주변의 모든 분들이 도와 주셨기 때문이며 특히 총판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의 각고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번 시설 보강으로 이 회사는 하이텔베르그 대국전5색기 1대, 미쓰비시 대국전4색기 1대, 아끼야마 대국전2색기 1대, 열압착 캘린더 제본기 1대, 상호쇄입기 4대, 정합기 6대, 금구기 3대를 비롯한 제본 및 제판시설과 디자인 시설 등 캘린더와 상업인쇄 제작에 필요한 완벽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홍일문화인쇄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캘린더 제작전문 업체로 1963년에 설립돼 그동안 캘린더 제작 기술 및 인쇄문화 향상에 크게 기여해 왔다. 특히 미국과 일본 등에 캘린더를 수출, 캘린더 수출의 선봉장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같은 공로로 82년엔 캘린더수출 우수업체로 선정돼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한편 이 회사는 2003년도 캘린더 제작과 관련 야심작 두편을 준비하고 수주에 여념이 없다. 첫 번째는 누드캘린더. 지난 여름 국내 유명 모델을 캐스팅해 필리핀에서 캘린더 제작업체로는 처음으로 누드캘린더 사진을 촬영했다. 이 캘린더의 주제는 누드모델 ‘하소연의 수줍은 스무살’, 누드모델 ‘은빛의 은빛여행’이다.





린더도 선보일 예정이다. 트레이닝 카드 캘린더란 자신이 좋아하는 선수 카드를 매월 다르게 캘린더에 꼽아 볼 수 있는 캘린더다.

두 번째는 월드컵 캘린더. 국내 최대의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주)코코엔터프라이즈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축구 국가대표팀 캘린더를 제작, 판매에 들어갔다. 축구 국가대표팀 캘린더에는 2002 월드컵에서 활약한 홍명보, 안정환, 황선홍, 김남일, 박지성 등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의 명 장면들이 담겨져 있어, 2002년 월드컵의 열기를 2003년에도 간직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트레이닝 카드 캘린더

## 차한잔 - 이연지회장

### “디지털시대 맞는 캘린더제작이 생존관전”



- 시설 교체 배경은.

사실 요즘 같은 불확실한 시대에 수십억원을 투자하는 것이 무리 아니냐는 주위의 의견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캘린더 전문 업체로서 쌓아온 이미지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변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시발점은 시설의 현대화에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고 장세근사장님이 그토록 아끼던 회사였기에 항상 책임감도 가지고 있었지요.

- 아드님이 입사를 했는데.

이제 2세 경영수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행히 아들에게 자질도 충분히 있어 보이고 무엇보다도 가업을 이어 열심히 하겠다는 의욕을 스스로 갖고 있기 때문에 평사원부터 시작시켰습니다. 요즘을 디지털 시대라고 하는데 아들에게 정보화 사회, 디지털 시

대를 열게 하려고 합니다.

- 요즘 캘린더 업계의 경기는.

모든게 전 같지가 않아요. 특히나 인쇄사간에 심한 과당경쟁으로 캘린더 마진이 형편없어 졌어요. 기업체 독판 캘린더는 물론 시중에 판매되는 기성캘린더까지 담배한갑만도 못한 가격으로 내려갔지요. 얼마나 잘 만들까보다는 얼마나 더 싸게 할까가 문제인 것 같아요. 품질로 경쟁하고 싶어요.

- 앞으로의 전망은.

과거에는 캘린더가 각각의 기능을 살리는 측면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기능상의 목적 뿐만이 아니라 집안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나만의 공간을 연출하는데 필요한 하나의 인테리어 소품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장식함으로써 풍요로움이나 즐거움, 편안함을 찾습니다. 따라서 세련된 캘린더제작이 생존의 관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창준국장〉